



# LH임대주택 475호, 근로자 기숙사로 공급키로

## 화성시, 내국인 근로자 주거안정 기여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화성시가 LH임대주택 475호를 임대 기숙사로 공급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LH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 보유 관내 임대주택 중 공실을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우선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509호실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는 총 475

호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남양읍 179호, 동탄2지구 176호 비봉지구 49호, 봉담2지구 45호, 향남2지구 26호 순이다.

신청 자격은 화성시 소재 제조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중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12~16일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9일 통보되며 선정된 기업은 5월 28~30일 LH와 임

주계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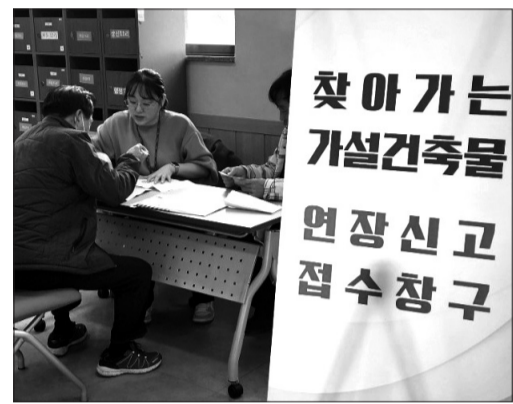
시는 기업의 운영 기간, 수출 활동, 기술 등 인증서 보유, 근로자 신규채용 현황, 청년고용 여부 등을 고려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내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더 일하기 좋은 화성"을 위해 LH를 비롯한 여러 기관 간 협업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서남부권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4개 거점서 가능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 모습.

화성시가 이달부터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를 정기 운영한다. 이는 서남부권역 민원인이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 화성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축허가과 담당자가 봉담읍·향남읍·우정읍·마도면 등 4개 주요 거점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매일 하루씩 방문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와 상담을 진행한다.

4월 일정은 16일 봉담읍, 17일 향남읍, 18일 우

정읍, 19일 마도면 순이다.

시는 매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존치기간 만료 예정 안내문에 읍면별 창구 운영 날짜를 기재해 안내할 예정이다.

노남용 화성시 건축허가과장은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를 시범운영하는 동안 민원 처리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기타 인허가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정책 조언할 '3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회' 발대식

제3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회가 27일 화성시 청년지원센터 H.E.Y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화성시 청년정책협의회는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청년체감형 정책 제안을 위한 협의체로 제3기는 65명이다.

이날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안내 및 교육, 임원 선출, 5개 분과별 네트워크 등이 진행됐다.

협의체는 향후 1년간 분과별 청년 문제 발굴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화성시의 청년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청년정책협의회 위원들은 "화성시는 인구 100



제3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만의 미래가 밝은 청년도시"라며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 청년정책

협의체가 함께 고민하며 청년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 화성진로체험지원센터, 도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선정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선일) 화성진로체험지원센터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경기도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선정됐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전국에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19개로 도내에서는 31개만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화성센터는 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단위 진로교육 정책 논의 과정 참여 △경기 남부권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개정교육과정과 연계성 강화 사업 운영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자생력 제고 방안 모색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발굴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센터는 지역 인적·물적·문화적 교육

자원을 활용한 초·중·고 진로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선일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들의 발전으로 학생 중심의 진로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환경재단-유치원연합회-어린이집연합회, 자원순환 교육 힘 합쳐

화성시환경재단은 22일 화성시유치원연합회·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와 화성시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어린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임현숙 화성시유치원연합회장, 김미아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장, 심민보 화성시 자원순

환과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자원순환 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자문,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화성시환경재단과 화성시에코센터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연계해 자원순환 교육, 숲 치료, 인형극, 퇴사립 목공 등 환경 감수성을



화성시환경재단, 화성시유치원연합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장 견학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 확정



정명근 화성시장이 더 청렴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화성시, 개인별 청렴활동 평가 추진

화성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주재로 '실천하는 청렴문화, 클린화성 구현'을 위한 2024년도 제1회 '더 청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더 청렴 협의체는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활동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이날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2024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 선언 △고위직 청렴다짐 SNS 릴레이 캠페인

페인 △부서장 주관 유증운전 제로화 △개인별 청렴활동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더 청렴 협의체를 분기별로 지속 운영해 고위공직자의 청렴 관심도를 제고하고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반부패 청렴 추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년간 연속해 이뤄낸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등급 달성은 시민들과 화성시 공직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100만 청렴화성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탁과 불공정한 행위는 과감히 없애고 기본과 원칙은 준수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화성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화성시가 관내 우수기업과 협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고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2024년 '화성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 기업을 1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구직자에게 실시하고, 직무교육 이수자들이 실제 참여기업에 근무하며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 청년 구직자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에는 직무교육을 마친 참여 청년이 3개월간 배치되며 이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된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화성시 내 사업

장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 기업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 청년청소년 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5월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공고한 뒤 참여 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준영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지역 청년들의 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고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서부노인복지관-화성의과학대, 업무협약



박정숙 관장(좌측)과 의과학대 관계자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관장 박정숙)과 화성의과학대학교(총장 김진영)는 28일 시민 복지 서비스 제공과 업무 활성화,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및 지원 방안 강구,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노인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기로 약속했다.

김진영 화성의과학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부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과학과 노인복지의 결합으로 노인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입주민 복지서비스 접근 향상 MOU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호)은 인근 한우물마을 휴먼시아 5·6단지 입주민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정호 관장을 비롯해 아파트 이수경 5단지 소장, 홍현철 6단지 소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복지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협약 기관 상호 정보 교류 및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복지관과 아파트 관계자가 입주민 복지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www.ihnews.com  
news@ihnews.com

우리지역 대표신문 **화성신문**

대표이사/발행인 민병옥 인세인 장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민규  
(우)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37-6 메트로프라자 702호

2004년 10월 13일 창간 등록번호 경기 다 0106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전 화 : (031)232-1980(대표) ■ 팩 스 : (031)225-0159 ■ E-mail : news@ihnews.com  
■ 구독료 : 평생 구독료 1백만원, 연 구독료 10만원, 1부 2,500원 / 농협 351-0076-7779-73 (주)화성신문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한동훈 위원장과 화성시 국민의힘 후보들 총공세

##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는 후보로서 자질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유경준, 홍형선, 한정민, 최영근, 박연숙 화성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총선을 위한 총공세에 들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화성시 국민의힘 후보들과 26일 향남에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화성

시갑·을·병·정 후보인 홍형선, 한정민, 최영근, 유경준과 화성시의원 보궐선거 박연숙 후보까지 총출동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의 화성 발전 방향에 만족하는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라며 “화성

시는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 빠르게 뚫어 나가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를 공영은 후보는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기업의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구매해 투기를 했으며 그것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을 선물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인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우릴 지배하게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화성갑 홍형선 후보는 국회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챙긴 능력있는 적합한 준비된 인물, 화성을 한정민 후보는 젊은 정치인으로 더 큰 싸움을 하기 위해 직접 나온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인물, 화성병 최영근 후보는 전 화성시장으로서 현재 화성시를 만들고 키운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준비된 인물, 화성정 유경준 후보는 지금의 국힘 공약 대부분을 직접 만든 사람이자 정책전문가로 전략과 배포 그리고 실천이 가장 필요한 화성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권철승 후보, 출정식 열고 정권 심판 주장



권철승 후보(우측 3번째)와 지지자들이 출정식에서 승리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권철승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후 봉담2지구 내 삼봉 근린공원에서 시민, 당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은 권 후보의 로고송에 맞춘 자원봉사자들의 울동, 주민 찬조 연설 등 시민 중심의 행사로 기획됐다. 권철승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의 이태원 참사, 해병 대원 순직 사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추가조작 의혹 등 5대 실정을 거론하며 정권심판론을 주장했다.

권철승 후보는 “윤석열 정권은 집권 2년간 우리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며 “국민을 우습게 알고 민생을 파탄 낸 정부 여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국힘 화성병 시의원 “화성시는 관권선거 중단하라!”

## 최영근 후보 현수막 철거 놓고 의혹 제기

국회의원 화성병 화성시 의원은 25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는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힘 화성병 시의원은 “최영근 국민의힘 화성병 후보가 19일 오후 1시경 능동 서동탄역 파크 자이 아파트 입구 삼거리 횡단보도 옆에 ‘능1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정당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21일 오전 9시 45분경 돌연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용역 직원이 철거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최영근 후보 선거캠프는 “민주당 정당 현수막의 경우 1m 높이도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됐는데 철거되지 않았다”라면서 “생활민원과 관련된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 철거가 왜 말이나”라고 화성시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국힘 화성병 시의원은 “만일 화성시가 민주당



국회의원 화성병 화성시 의원이 화성시의 관권선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의 선거를 돕기 위해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고, ‘관권선거’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흔들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재발방지와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화성시 등부출장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공영운 후보, “반도체+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공영운 후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를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동탄을 신 혁신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공영운 후보는 “화성은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미래 먹거리 2개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반도체 따로 자동차 따로 성장하기보다는 두 산업을 묶는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새로운 신 성장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동탄 신도시 주변은 이미 반도체 제조사,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리잡고 있기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

했다. 공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R&D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혁신산업의 불씨를 꺼버렸다”면서 “산업 성장의 계기를 다시 마련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내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200~300개인데 앞으로 레벨3이상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미래차용 반도체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국가경쟁력과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탄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중요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겠다는 것이 공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전용기 후보, “계획도시 넘어 완성도시로 가야할 때” 본격 총선 체제 돌입



전용기 후보가 본격적인 총선에 돌입하며 현 정권에 대한 지적과 동탄 발전을 위해 절고 추진력 강해 인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정 국회의원 후보가 28일 동탄신도시 북광장에서 본격적인 총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자리에는 동탄주민을 비롯한 당원들이 함께 전용기를 외쳤다.

전 후보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추가조작 의혹 등 현 정부의 5대 실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더욱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추진력 강한 젊은 일꾼이 필요한 때”라며 “동탄과 반월을 계획도시를 넘어 완성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나라를 살리는 선거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표로 함께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한정민 후보, 공영운 후보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 의혹 제기

##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더이상 상처 주지 말길”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시를 국회의원 후보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인 공영운 후보를 두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공 후보가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땅과 건물,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후보의 자진사퇴 및 민주당 차원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정민 후보는 “동탄의 국회의원 후보이자 착실하게 월급 모아 전셋집을 마련했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공영운 후

보의 주택의 증여를 세무사와 부동산에 일임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내가 자기와 상의없이 투기를 했다면 흑색 선봉보다 더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후보직을 내려놓고 시세차익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면서 “그것이 아니고 야계 집 하나를 마련한 동탄의 신혼부부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주지 않는 길”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공영운 후보측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관련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더 겸손하게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한정민 후보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인 공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한미경 시의원 후보 “제대로 일할 시의원 될 것”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의원 보궐선거(화성시선거구) 후보는 28일 향남 로데오거리에서 김형삼 민주노동 수원용역인산화성지부 의장, 박택제 진보당화성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집중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미경 후보는 “지금까지 지역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역 살림을 챙기겠다”라며 “입을 모아 당부하신 것은 ‘제대로 일할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25명으로 시의원 숫자는 크게 늘었으나 오히려 민원제기는 더 어렵다고들 하신다”라며 “제가 시의원이 되어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라고 호소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양분하고 있는 화성시의회에 새로운 색깔, 다양한 색깔이 필요하다”라며 “시의회 후반기는



한미경 화성시의원 진보당 후보가 첫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진보당 한미경으로 인해 확 바뀌었다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GTX-A 개통·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화성시 대변혁

## 수서까지 20분, 서울 인재 화성 진입성 개선

## 동탄1·2 신도시 하나로 연결, 보타닉가든 연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모습.

화성시가 지난해 말 100만 인구를 달성한 데 이어 GTX-A가 30일 개통되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28일 마무리되면서 교통의 대변혁까지 이뤄졌다.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 GTX-A를 통해 화성시는 서울 강남, 판교와의 연결성이 크게 개선된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강남,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화성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 철도교통의 핵심인 동탄역 이용객이 1일 약 1만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특히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심 속 쉼터 '보타닉가든 화성'과 연계해 명품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먼 거리가 아님에도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화성시의 양질의 일자리와 고품질 주거환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화성시를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핵심인재들을 화성시의 첨단기업으로 모이게 해 '누구나 살

고 싶어하는 도시 화성'의 완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GTX 수서역 관제실을 방문해 "GTX의 빠른 속도를 제감하기 위해서는 정시성이 핵심이며, 열차 지연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실에서 열차 운행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이번 GTX-A 개통은 철도가 화성시와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를 잇는 철도망의 출발점으로 서해선,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랩 등 8개 사업이 2029년까지 개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상·계획 중인 8개 사업을 더해 총 16개 철도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광역교통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도교통의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출퇴근 시간 축소로 시민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또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랩이 동탄역으로 연계되고, 추진 중인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공

항), 분당선 연장이 완성될 경우 동탄역이 경기남부 철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시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접근성의 한계로 화성 기업에 오기 힘들었던 현실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 기업유치에도 GTX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부고속도로 화성 통과구간 1.2km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하화되면서 그동안 나뉘었던 동탄1, 동탄2 신도시가 온전히 합쳐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 서울방향이 개통된 이후 28일 하행구간까지 개통됐다.

화성시는 상부에 6개 연결도로를 5월 착공,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나눠져있던 동탄지역을 하나로 잇는다. 특히 동탄역 바로 옆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상부에는 6만 297㎡ 규모의 상부공원을 조성한다. 공원은 정명근 시장의 역점 공약인 '보타닉가든 화성'의 전이온실이 들어서는 여울공원과 녹지축으로 연결돼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GTX-A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로 인한 불편을 묵묵히 견뎌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고속도로로 인해 도시가 나뉘어 있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나뉜 도시가 이어지고 이동이 편해지면 시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여러 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및 상부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화성시의 사례가 도심 내 철도 및 도로 입체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정원 '보타닉가든 화성'이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까지 확장되면 전지와 관광, 체험과 휴식까지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류하며 삶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총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텝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 계획 현황을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투자로 추진되며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된 후 동년 11월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조속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 화성진안 택지개발지구, 하반기 지구 계획 신청

2만 9000여호 규모의 화성진안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 신청이 올해 하반기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2025년 1월에서 올해 하반기로 조기화하고, 인천계양은 올해 상반기, 고양창

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은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은 올해 상반기 지구 계획을 신청하고 광명승인은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이 목표다.

화성진안은 올해 하반기 지구 계획 신청이 예정돼 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 화성산업진흥원, 마이크로바이옴 뷰티 제품 사업화 지원



년 화이트바이옴 혁신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성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스맥스, (주)노디너리, (주)비즈니스마인 등 5개 기관이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친환형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혁신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를 활용한 뷰티 제품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이며, 총 5개사를 선정하여 △지식 재산 코디네이팅, △메모 제작 지원, △디자인 코디네이팅, △소비자 품평회, △시험평가지원 등 사업화 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4월 12일이다.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hipa.hscity.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 화성상의, 화성 ESG 실무협의회 발족식



화성 ESG 실무협의회 발족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 기업 당면 ESG 현안 논의·사이트 강화

화성상공회의소(안상고 회장, 이하 화성상의)가 26일 화성상의 세미나홀에서 화성 ESG 실무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제1차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화성상의는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화성 공급망 ESG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받았다.

이번에 화성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 영위 및 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축했다.

화성 ESG 실무협의회는 관내 상장사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ESG 활동 성과 공유 △ESG 관련 규제 애로·건의 전달 △화성형 ESG 이니셔티브 공동 수립·확산 △업종별·규모별 공급망 실사 대응 등 ESG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참여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끌어올리고, 화성시 소재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화성 ESG 실무협의회 발족식은 △임원 선출 △2024년 협의회 운영 계획 △2024년 ESG 지원사업 안내 후 화성상의 안상고 회장의 인사말 및 인준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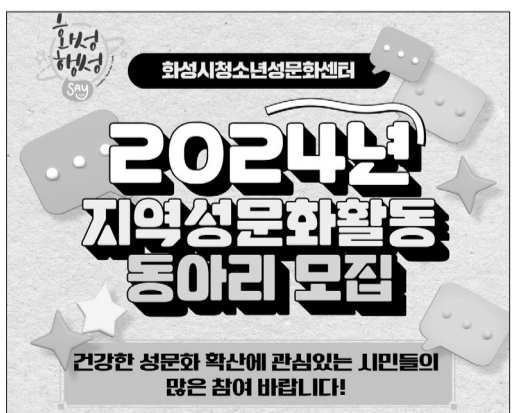
당일 진행된 임원 선출에서 회장 박상우 부장(㈜에프에스티), 부회장 서유리 팀장(에이피시스팀), 문현진 차장(㈜기레인), 상근부회장 구대완 본부장(화성상의) 및 총무 남명진 이사(㈜대남테크놀로지)로 임원단이 구성됐다.

이후 박상우 협의회 회장의 주재로 회칙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ESG 경영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의 이해'를 주제로 한 지속가능경영 연구소 이상호 대표의 특강으로 마무리되었다.

화성상의 안상고 회장은 "화성 ESG 실무협의회는 화성시 기업이 급변하는 ESG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출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의회 임원단과 회원들이 ESG 경영,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경영이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화성상의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밀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 청소년성문화센터, 안전한 성문화 환경 조성 '동아리' 모집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1일부터 관내 성인식 개선과 안전한 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화성시 성인 대상 '성문화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문화활동 동아리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6인 이상의 그룹이 신청 가능하며, 총 4개 동아리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2024년 말까지 최대 25만원 상당 성인식개선 관련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 받는다.

4~11월까지는 매월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고 성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봉사 나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그룹별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11월 동아리 연합모임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서 제출은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직접 방문 혹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메일(hssay@hswf.or.kr)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홍식기자 news@hnews.com

## 가족센터, '다도(茶道),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23일 관내 1인 가구 대상 건강돌봄 프로그램 '다도(茶道),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차 예절 배우기 △세 종류의 차 시음하기 △차혼 명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도 프로그램은 차 예절을 배우며, 명상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열렸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다도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 2012년 화성시 최초 사단법인 출범, 부활 다짐

(사)화성중앙기업인협의회는 28일 컨벤션더힐에서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용근 초대 회장, 김치목 고문, 정의표 자문위원, 김기형 자문위원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최용근 초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화성중앙기업인협의회는 2002년도에 팔탄 기업인 70개 회원으로 시작해 2012년 화성시 최초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138개 회원사까지 늘어났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었다"라며 "각 이사회가 역할을 나누어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회원들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최명주 총무의사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활동 영상을 시청한 후 참석한 회원 모두 돌아가면서 본인의 회사 소개와 인사를 했다. 회원 서로 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좋은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회원의 애로사항 및 문의사항 시간에는 실선으로 돼 있는 회사 앞의 중앙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회사 인근 도로의 파손 부분에 대한 빠른 보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신규 회원사 회원증서 전달식과 단체 기념촬영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사)화성중앙기업인협의회는 현재 83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매월 임원회의 및 골프 모임, 한국폴리텍대학 장학금 전달, 분기별 환경 캠페인, 봄·가을 나들이, 6월 세미나, 12월 총회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화성중앙기업인협의회는 2023년 말 회장을 맡기로 했던 L씨가 돌연 포기하면서 현재 회장 공석 상태에 이사들이 역할 분담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용근 초대 회장은 "봉사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회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이사들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 무결점 학교 신축 위한 '화성·오산형 사업 추진 워크숍'



학교신축과 대상 워크숍 진행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운)은 26일 신축 학교 신축에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를 해결·예방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진행한 학교신축과는 신설 학교의 적기 개교와 고품질 학교 신축을 위해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특히 저경력 직원의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관리 경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개교 지연 및 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무결점 학교 신축을 위한 단계별·공정별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유명호 학교신축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기 준공 및 안전사고 근절로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신축과 지역사회 및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시설 복합화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도교육청, 초·중등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6일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해 하반기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 자료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다.

교육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취기준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요건의 연계성 분석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 통합 수업 사례 △인공지능 윤리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과별 논·서술형 평가 문화 예시 등을 담는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취기준과 인공지능 윤리기준 연계성을 분석해 교육과정

과 수업, 평가를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23일과 26일은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연구진, 집필진 워크숍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글로벌 동향 및 필요성 △생성형 인공지능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방향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하미진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필수 소양이다"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개발 자료가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윤리교육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안용중, 경험과 문화가 만나는 '야외학습공연장' 신설

안용중학교(교장 김종봉)가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통해 수업과 공간을 혁신하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경험과 문화가 만나는 '야외학습공연장'을 신설했다.

이번 공연장은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교실 너머 확장된 수업이 가능하며, 학생의 쉼터,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2일 야외학습장에서 안용중 합창동아리 학생들이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이며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을 알렸다.

김종봉 안용중학교 교장은 "학교 안 야외학습공연장에서 새로운 학습의 세계를 만난 순간을 학생에게 봄날처럼 상큼하고 넘치는 활력을 제



안용중 합창동아리 학생들이 야외학습공연장에서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공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서연이음터-롯데캐슬작은도서관, 업무협약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서연이음터와 롯데캐슬작은도서관은 27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음터(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협조 △교육에 필요한 공간 협조 △도서관 간 네트워크 확립과 상호교류 증진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원 및 홍보 협조 등을 약속했다.

특히 양 기관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연계, 자원 연결 등 교육 공동체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

임선일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교류를 통한 도서관 네트워크 확립과 상호보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지역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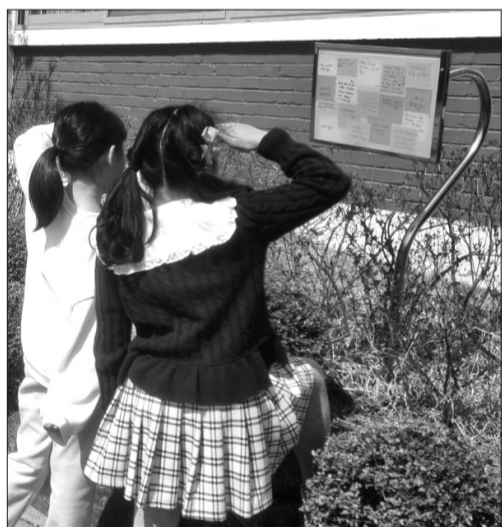


양 기관이 주민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서연이음터는 디자인생각, 목공, 가죽, 패브릭 등 특화 장비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독서문화 진흥, 정보취약계층 등의 도서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비봉초, 봄을 부르는 아름다운 동시



학생들이 동시를 쓰기 위해 학교 곳곳을 관찰하고 있다.

작을 위한 '아름다운 전통 이어가기'의 일환으로 동시쓰기와 시화꾸미기를 3-11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이 동시와 시화꾸미기를 통해 공부뿐만 아니라 문예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해 기획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동시를 쓰기 위해 주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관찰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울리는 낱말을 찾아내서 글을 쓰는 것이 어렵지만 다 하고 나니 시인이 된 느낌도 들고 성취감도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삼수 비봉초등학교 교장은 "누구나 마음속에 시인이 사는 것처럼 동시쓰기는 학생의 마음에 사는 시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며 "문예감수성은 물론 사고력, 관찰력과 주변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송산초, 105년만에 대한독립만세 외치

송산초등학교(교장 한종식)는 27일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교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교재를 활용한 독립운동 캐릭터 AR로 구현 △전교생 태극기 만들기 플래시몹을 통해 그녀의 대한독립만세 외치기 △송산지역 3.1운동 기념사업회 주관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한종식 송산초 교장은 "송산지역 3.1만세운동의 역사를 가진 학교에서 기념행사는 하는 것 자체가 뜻깊은 것"이라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3.1운동의 과정과 조상의 나라 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 동학초, 함께하는 보치아 장애인 스포츠 체험

동학초등학교(교장 정미례)는 27일 6학년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보치아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실시했다.

보치아 경기는 1982년 덴마크 국제경기에서 국제경기종목으로 부상해 1988년 서울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해당 경기는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뇌성마비 1등급과 2등급 선수, 뇌성마비 장애가 없는 운동성장애를 가진 선수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체험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지역사회 전문강사의 교육에 따라 의자에 앉아 하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기본규칙으로 정해

진행했다.

색깔별로 나눠 2팀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각 빨간공 6개, 파란공 6개를 던져 하얀 표적구에 가까이 보낸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장애 인식개선에 한발 더 다가갔다.

정미례 동학초등학교 교장은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기인 보치아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수학교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보치아 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회 팀도 다수 구성돼 생활체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경기도 최초의 봉안(납골) 전문 재단법인

# 孝園 효원가족공원

고인의 보관이 아닌 소통을 위한 곳

10년 사용료 **30만원** (관리비 별도)

www.skypark.co.kr

고객과의 약속 **마음·정성**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또한 최고의 서비스로 고인과 유가족에 정성을 다하며,
-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1800-2325

생각정리의 강력한 도구 생각을 성과로

생각을 성과로 바꾸는 기술 **ThinkWise**

맵 : 발상 능력      대시보드 : 발상과 실행의 조감      플래너 : 실행 능력

www.thinkwise.co.kr

전 세계 1% 핵심 인재를 위한

세계 최고의 마인드맵핑 소프트웨어

씽크와이즈 아카데미 화성공인교육센터 | 010-9245-5787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화성시갑 지역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이 국회의원 후보에게 묻는다”

**서민규 국장** : 이번 초청 토론회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화성시민 여러분의 후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후보분들의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후보와 주민대표 간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된 후 마지막 후보 간 질문 1개씩이 이어집니다. 후보분들은 3분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서 추첨에 따라 후보분 질의순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공통질문입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말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의 첫 국회의원이 될 제22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주 후보** : 안녕하십니까. 화성의 딸 기호 1번 송옥주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모두가) 화성시민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성 출신으로서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가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화성시는 100만 인구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지역 불균형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례시에 걸맞은 속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그리고 연습의 정치인으로서 화성시를 책임질 수 없다고 봅니다. (화성시 국회의원이 된 후) 지난 6년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많은 민원도 해결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화성특례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못 살겠다, 힘들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제도 파탄 났고요, 물가는 오르고 전쟁이 발생할 위험도 많습니다. 국민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정해야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에서 살 수 있으며, 경기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화성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량 있게, 또 주민과 충분히 소통한 참 일꾼 송옥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로 한 표가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자세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홍형선 후보** : 안녕하십니까, 화성갑 시민 여러분, 일 잘하는, 일하는 방법을 아는 국회 예산·정책전문가 국민의힘 기호 2번 국회의원 후보 홍형선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화성시 갑 지역은 마냥 기쁠 수는 없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국회에서 근무하며 국회의 정부 부처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오면서 다양한 국가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과 복잡한 국정 현안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워 왔습니다. 당선시켜 주신다면 곧바로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중진급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후보**  
“진정한 화성 발전 위한 책임·역량 있는 참 일꾼,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 주최·주관 : 화성신문,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16시
- 장소 : 화성신문 세미나홀
- 사회 : 서민규 화성신문 편집국장
- 패널(가나다순)  
국회의원 후보  
- 송옥주 후보(더불어민주당)  
- 홍형선 후보(국민의힘)  
시민대표  
-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 이상환 화성시농민단체협의회 회장  
-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고문

남부 발전이 우선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바로 중진급 의원으로서 국가정책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짚어내서 국가 예산과 지역경제 발전하는 방안을 풀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규 국장** : 두 분 후보님 각오 잘 들었습니다. 바로 패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희열 고문님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열 고문** : 화성시 서부권 발전이 동부권에 비해 더딘 것은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서부권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살고 싶은 고장이 되기 위해 교육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정주 요건 개선의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고등학교로 인해 많은 학생이 수원 등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고, 사교육 기관도 부족해 자라날수록 서부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인지요

**홍형선 후보** :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분야에서 화성시 동-서 간 상당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교육 분야에 종교교 과밀화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반당 학생 수가 30~40% 많고, 이 같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 대책은 학교 설립입니다. 교육청이 2026년 남양에 학교 설립을 이미 계획했으니 다만 저는 추가로 자사고 신설, 자동차 연관 자율주행 마이스터고를 공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원 등은 현실의 직접적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놀 곳과 끼를 발휘할 곳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 예술, 체육, 놀이공간을 위한 복합센터를 공급해야 합니다.

사교육과 관련해 아동수당이 끝나는 8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추진하겠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사교육 문제를 병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 정책을 보수당의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막바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옥주 후보** : 첫 질문부터 사실상 100만 특례시가 주제입니다.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화성시민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청으로 신설하는 작업이 교육부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총선이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



**홍형선 국민의힘 후보**  
“국회·정부 간 중재자 자임, 무능 14년 화성 더블어민주당 책임 물어야”

고, 화성시민의 독립 교육청이 신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 화성에 걸맞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서부지역은 13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예로 새솔동의 경우 과밀학급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가 적다 보니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공동 학교에 대한 고민도 있어,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 체육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뛰어놀고 거기서 꿈과 희망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솔동 이외의 지역은 다문화, 외국인 학생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한글 교육도 하고 우리 사회에 동화시켜 우리 사람으로 만들며,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얼마 전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화성시에 다문화, 외국인이 많다는 특성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학교, 글로벌 캠퍼스 운영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남양, 조암같은 경우 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이곳에는 현대차 연구소도 있고 기아차 노조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특성화고 신설도 고민 중이며, 기업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시설 추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학교 시설에 대한 확충뿐 아

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 수 있는 부대조건이나 정주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규 국장** :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상교 회장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교 회장** : 홍형선 후보가 가장 먼저 제기하고, 동부권 국민의힘 후보가 동참을 표명한 화성시 분시(市) 방안을 놓고 화성시민 사이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화성시 동부권과 서부권 주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분시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선거를 위한 대중영합주의라는 반박도 계속됩니다. 분시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송옥주 후보** : 저는 이 제안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시민이 100만 특례시가 되면 “화성시가 얼마나 발전하냐”라는 기대에 충만해 있습니다. 분시는 화성시를 50만, 50만씩 나누는 것이어서 100만 특례시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분시 제안은 중앙차원 제안을 따라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지역 여건이나 화성 발전에 대한 청사진, 화성시민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돼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특례시 진입 시 저희가 갖게 되는 특혜들이 있습니다. 인허가권에 대한 자치단체장 역할이 좀 커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 일반구 설립에 대한 특혜도 좀 있습니다. 만약 분시가 돼서 인구가 절반으로 나뉘면 이러한 혜택은 모두 없어지고, 화성시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반토막이 날 겁니다. 안 그래도 서부지역은 동-서 불균형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교통망, 철도 등 정주 여건, 택지조성, 서해안 관광벨트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중단되거나 아주 천천히 진행되게 됩니다. 주민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오히려 꺾거나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분시에 대한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면, ‘서부지역에서 나온 세입의 많은 부분을 동탄에 쓴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화성시 지방세 세입을 살펴봤더니 1조 5400여억원입니다. 그중 서부권에서 6765억원 약 44%를 걷고 있고 동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중 세출을 살펴보니 5045억원 중 2230억원 약 44%가 서부권으로 다시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분시가 된다면 서부지역에 지방세뿐 아니라 보조금, 국제, 도 지원 등 추가 지원이 절반으로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부발전을 위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시민들도 이 부분에 공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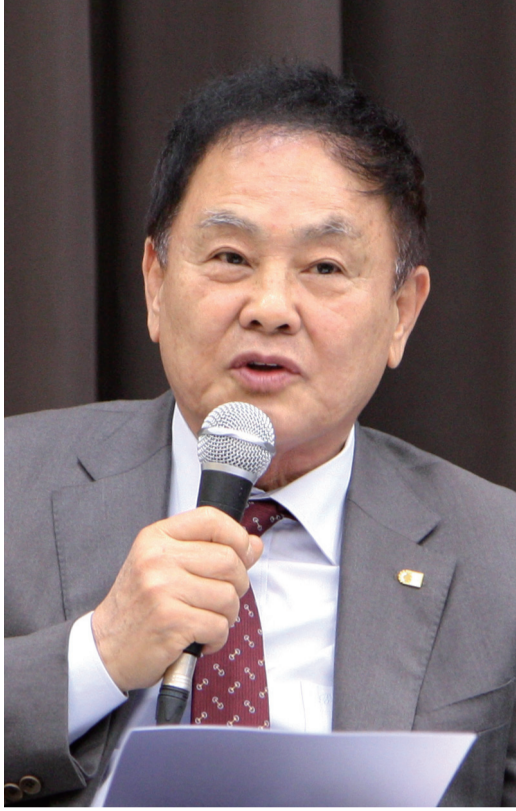
**홍형선 후보** : 제가 분시를 제안한 이유는 10년 넘게 균형발전을 외쳐 왔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구호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성시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한 화성 동측에 65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행정에 소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동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편의시설도 동부권역에 집중돼 있지만, 서남부권과 최대 58km나 떨어져 있어 이를 공유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 간 감정적 대립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분시는 정치적 구호에서 발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대중영합주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어불성실입니다.

세수 부문에 대해 지출 부문을 나눠 말씀해 주시길, 공직생활 대부분을 예산과 보낸 저는 지출 부문 계량화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인구 기준으로 동부출장소를 제외한 인구가 23~24만명이었을 때 여기에서 지방 세수의 43~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수도 평



토론회에 앞서 순서를 정하는 추첨이 이뤄지고 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장히 중요합니다. 서남부권 시의원 수는 6명이지만, 나머지 동탄, 동부권은 17명입니다. 비례대표도 동쪽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서남부권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열려있는 시기입니다. 난개발 문제나, 폐기물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서남부권 문제 하나하나에 시정이 몰두해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동부권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균형발전이 어렵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화성시 서부 지역의 지방소득세 없이는 거주지 위주의 동탄신도시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포트홀을 메꾸 예산마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화성시민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민규 국장** : 화성시 분시와 관련한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지역 현안입니다. 이상환 회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환 회장** : 쓰레기매립장, 돈·축사 등 온갖 기피·혐오시설이 화성시 서부권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화성시 서부권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에는 바로 수원시와 국방부의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 시도가 있습니다. 화성 민관정의 단호한 반대에 따라 이제 경기도까지 협치해 민관 합동 공항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주민들을 호도하기도 합니다.

화성시 서부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수원군공항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폭격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 온 매량리 주민들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원시, 국방부, 이제는 경기도까지,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화성시 정치인과 시민들까지 서부권 시민들의 근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지부진한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두 분 후보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형선 후보** :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투트랙으로 접근했는데요. 첫째는 2013년 ‘군공항이전특별법’ 이후 2017년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가 된 지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이 양 지자체 간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하는 군사시설 이전 방식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8년간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제로베이스 한다는 것이 제도의 본질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선된다면 일몰법을 추진해 예비이전후보지라는 화성갑 지역의 주홍글씨를 제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옹지구 7, 8공구가 세만금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깊어쳐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세만금 사업 특별법’을 통해 농지로 개발했던 그 넓은 평야,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금은 산업단지가 됐고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화옹 7, 8공구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해 산업, 관광, 문화 특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군공항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2020년 수원시 5명의 의원이 공항과 관련한 공동공약을 발표했지만 3명의 화성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논란은 확대 재생산되고 이로 인해 지역은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상환 화성시농민단체협의회 회장

파탄나고 있습니다만 ‘국민과 함께, 화성시민과 함께, 갑 시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는 허황된 구호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지역경제는 볼모로 잡혀있고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구호만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고는 과연 ‘민주당이 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고 있는가?’ 하는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옥주 후보** :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반대해 오신 우리 화성시 70%가 넘는 시민 여러분과 범대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도 여의도까지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그런 열정을 국회의원과 정부, 여러 시민에게 알린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완전히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열정을 다 담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당의 책임이거나, 발전을 저해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책임을 전가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군공항이나 국제공항이 들어와야 한다’ 하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생각합니다. 관련된 법은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21대 국회) 5월 29일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부분입니다. 종전 부지에 자치단체가 합부로 할 수 없게끔 법을 개정하고, 이전 부지에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합니다. 군공항에 가장 큰 문제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드론전투기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산배치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 국방 전력 차원에서 수원 전투비행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주민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고문

정치나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쓸데없는 갈등과 우려를 촉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나 수원, 화성의 정치인을 떠나 정치인의 책임은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슈를 제기하거나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수원주민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의 화합을 위해서 중지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수원, 화성뿐 아니라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와 같이 상생협력을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종식시키고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규 국장** : 지역 현안에 대한 패널분들의 질문과 후보분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 경제, 1차 산업 등 분야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열 고문** : 동-서 간 균형발전은 화성시의 숙원입니다. 새솔동, 남양 신도시, 향남·2 신도시 등 서부권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탄을 위시한 동부권에 비해 느린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통, 교육, 병원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동부권에 비해 주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는 등 화성시 서부권은 관광산업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송산그린시티를 관통하는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 철도, 전곡항을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 철도, 우정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우정 연장 철도 등 미래 지향적인 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화성시는 서해안 관광벨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 서부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실행을 위한 강력한 정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두 후보께서는 철도를 포함한 화성갑 지역 광역 교통망의 조

기 달성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할 생각이신지요. 또한 사업 추진 10년이 돼가도록 나대지모 있는 송산그린시티 에코팜 예정지 등 화성시 갑 개발을 위한 실행,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후보** : 제가 6년 전 내려와 지역의 많은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중 민원의 80% 이상이 도로, 교통, 철도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도로가 딱 막힌다. 교통체증이 심하다, 왜 우리는 전철이 없느냐, 언제 기차가 개통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발이 되는 교통이나 도로 관련 상황이 열악하다는 부분일 것이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경기 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과 경기남부 동서횡단 철도, 우정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철도 계획이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손잡고 이런 정책이 더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철도망이나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서부지역에 많은 예산과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시(市)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화성 서부지역의 철도, 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시 부분은 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시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명분을 만들거나, 화성시민이 내 삶을 바꾸고 편안, 안전하고 100만 넘어서 150만, 200만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기초를 놓는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새솔동 에코팜 부지와 관련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코팜 부지뿐 아니라 수자원공사 사나 LH에서 남겨놓은 유보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어떻게 돌려드릴까 고민도 많습니다. 새솔동은 젊은 인구와 학생들이 많지만 뛰어놀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문화 체육 시설,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시민이 같은 의견으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할 때 추진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선 후보** : 동-서 불균형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화, 교통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 관광벨트 사업은 저희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고, 개선된 내용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철도 기본 계획안은 신안산선을 대부도까지 연장하고, 동탄과 전곡항 동서횡단철도를 구상하고, 신분당선을 우정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또 다른 희망 고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철도는 국가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공항과 함께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 2026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에서 절차대로 (계획을) 올린다면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제가 당선되면 여당의 힘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철하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코팜 부지에 대해 새솔동 서쪽 남은 8만여평의 부지는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송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거민의 편의시설, 체육,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복합센터를 건설하는데 부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새솔동에 자급자족 기능도 강화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비즈니스 특구,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서 자족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솔동 상권이 다 죽어있습니다.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경제, 새솔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해야 하고 공약을 결코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규 국장** : 다음으로 안상교 회장께서 화성시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상교 회장** :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를 가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난개발과 공장과 제조장의 난립으로 인해 산업환경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가 상승과 인건비는 화성시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화성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청장년의 노동 산업에 대한 기피로 인해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다수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성시 대기업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분투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성시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어려워 큼니다.

결국 화성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화성시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후보님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형선 후보** : 지금의 문제는 단지 화성 지역경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거시경제와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대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 미시적 문제까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외 의존형입니다. 수출에 의지하고 많은 부문이 수입으로 이뤄져서 원자재가 수입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산유국 유가 인상, 곡물가 인상, 특히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 인건비가 쏠 인력들이 많이 유출됐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환율 압박을 높이기 위해 갈라려 나서다 보니 우리 환율의 압박 요인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자재, 금리, 물가 문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러한 대외환경만 탓하기에는 상황이 급박하고 절실합니다.

우리는 또 제조업 공장이 많습니다. 1만 2445개 공장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제조업 지역으로 인력수급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가는 서민경제를 직격하고 있고, 대충은 민생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은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흥적 정책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을 저도 침담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빠른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는 사업부터 조기 집행체계를 만들어 투자 활성화가 되는 예산부터 따오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유효수요를 창출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앞으로 끌고 와 지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문이 있어서, 좀 더 현실화시켜 공약에 기반하는 투자활동을 유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물가나 이자율 등 거시적 문제는 따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후보** : 화성상공회의소 안상고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화성 내 제조업, 사업체 분들에게 고민이 특별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부, 화성시,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두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화성시는 난개발이나 구인난이 특별히 심한 것 같습니다. 난개발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화성시와 손잡고 성장관리 계획을 추진하는 부문에서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 화성시 난개발 때문에 난개발 포럼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고, 제정안까지 낸 부문도 있습니다. 올해 되지

**송옥주 후보** : 화성시 내 농업인분들이 3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를 가면 ‘농업은 미래이자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와 생명에 대한 대우나 대접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조금씩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화성시정을 책임지지는 않지만, 예산의 역수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부족해 수입해야 하고, 수입이 잘 안돼 국민의 식량 차원에서 애로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소리로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제도적 부문을 많이 갖춰야 합니다. 쌀뿐 아니라 농산물과 관련한 가격안정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쌀이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유통업자들은 배부르지만, 1차 농산물 생산 농민께서는 어려움을 직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뿐 아니라 축산업과 관련된 사료 지원, 여러 가지 악취 제거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수

팜이 앞에서 나서야 합니다. 이는 중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입니다. AI 기능으로 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시키고 품질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지금부터 화성시 농업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은 이제 6차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차 산업으로 관광, 생산을 연계한 사업 패키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관광과 농업을 더하면 6차 산업이 됩니다. 화성농업은 수도권에 있어 6차 산업으로 갔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됩니다. 이럴 때 노령화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민규 국장** : 어느새 지역 현안과 각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 간 질의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쌀뿐 아니라 농산물과 관련한 가격안정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쌀이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유통업자들은 배부르지만, 1차 농산물 생산 농민께서는 어려움을 직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뿐 아니라 축산업과 관련된 사료 지원, 여러 가지 악취 제거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수

**홍형선 후보** :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송옥주 후보께서 가장 치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아본 결과 중앙부실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알고 있

신 분이시고, 홍형선 후보께서는 화성시 출신이시긴 하지만 사실 외곽에서 활동하시다가 지난해 고향에 와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화성시와 밀접하게 관계된 분이 시장도 하시고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나 평판도 있는 화성병 최영근 후보인데, 이 분은 분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고 행정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후보께서는 분시를 계속 주장하실 건지 또 분시와 100만특례시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고 화성 서부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개발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형선 후보** : 분시는 제가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례시 스타트 라인에서 소금을 끼얹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속고를 했습니다. 속고에도 불구하고 분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지가 모이면 중지로 임박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점도 메가시티가 나오고 제가 분시를 제기한 후 분도가 제기됐기 때문에, 분도,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한다는 이런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주민 편의 제고와 행정

위해 고향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던히 닦았습니다. 인정받아서 ‘참 일 열심히 해, 잘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열정을 담아서 22대도 국회와 화성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평화도 위협받고,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과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뭐만 터졌다 하면 다 범죄자 취급하고 몰아붙이기 바쁩니다. 지금의 대 정권과 관련한 부문도, 처음부터 협상이나 타협해야 하는데 마치 물기 하듯이 하는 부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또 평화로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를 선택해 주시면 화성, 우리 고향을 발전하게 하고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시면 저희가 편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발전된 체도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화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소중한 한 표 반드시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형선 후보** : 정치 공학에 절대 권력은 점점 썩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견제 세력이 없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장, 민주당이 이끌어온 지 꽤 됐습니다. 지금 견제 세력 하나 없습니다. 반드시 견제돼야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할 견제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교류할 수 있는 가교자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화성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성시 혼자만 안 됩니다. 화성시 혼자만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중앙정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화성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화성시갑 시민분이 충분히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할 일은 다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이 할 일은 시의원에게 맡기고, 시의원의 공로로 만드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은, 자동적으로 해 온 일에 대해 자기가 해 온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와는 화성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배부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부분을 꼭 따오는 국회의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을 때 진정으로 화성시 발전이 이뤄지고 동-서 간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서 간 불균형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주민을 분열시킵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화성시는 통합을 만들어낼 수 없고, 통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화성시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고,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힘이 의지가 있는냐에 대해 냉정하게, 불편한 진실이라도, 냉정하게 쳐다봐야 합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한번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화성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는 길에 제가 가진 역량과 능력과 제가 가진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낮은 자세로 우리 화성시민과 소통하면서 화성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미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 기호 2번 국민의힘 홍형선, 한번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규 국장** :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민 패널리스트들이 직접 선정한 질문을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면서 향후 화성시갑 지역의 발전 방안과 개선점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방청하시는 모든 분과 화성신문을 통해 보도를 접하시는 유권자 여러분이 4월 10일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후보,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동영상은 화성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WCobR5kFc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임박해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인난과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게 많습니다. 화성시에서 생산된 것을 화성시에서 소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부문이 있는데, 공유하고 상생하면 많은 것을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 업체나 화성시 내부 업체에 대한 배려 등 기준이 부족한 부분은 화성시와 화성시의원과 상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자동차, 반도체, 제약, 바이오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협력업체나 다른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부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중소기업 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등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을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허리입니다. 산업이 망가지고 제조업이 없어진다면 경제가 붕괴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과 산업이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규 국장** : 화성시는 2, 3차 산업 이외에 1차 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환 회장님께서 농업 등 1차 산업 문제에 대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환 회장** : 화성시는 서울특별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이 1, 2, 3차 산업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축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도농복합도시로 쌀 생산량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고 해안선도 경기도에서 가장 길어 수산물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비해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은 치솟는 원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시 1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산업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1차 산업에 관련된 꼼꼼한 배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1차 산업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고령화에 대해 ‘이 사업을 접어야 하나?’ 우려가 많습니다. 사양 산업화하는 1차 산업 방지를 위해 청년 농업뿐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지역 발전이 더더 아파트나 도시로 빠져나가는 부문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하신지 하지만 주변 여건도 살만한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아름답고 편한 화성시갑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하겠다고 합니다.

**홍형선 후보**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확기 등 쌀이나 과수에 있어 화성시는 수도권 최고의 농업 산지입니다.

두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난개발로 공장 전용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송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령화입니다. 우리 농업 평균 연령이 67.2세입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노령화 문제에서 바로 제기됩니다. 화성농업이 향후 10년 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바로 직면한 문제이며,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인은 곡물 가격은 상승하는데 낮은 소 가격이 지속됨으로써 원가 부담, 소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농업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예산 사업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대출 압박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는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농가 원가 부담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부활시키거나 확대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제값 받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찾아 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자동차, 기계화를 넘어선 AI스마트

습니다. 통과를 위해 송 후보께서 노력한 부분과 애 안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주 후보** : 신안산선 향남 연장과 관련해서, 이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향남, 남양, 송산에서 제대로 서둘러갈 수 있는 전철이 없어 저희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시와 당정 협의를 통해 이 부문들이 추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화성시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을 하는 부문입니다.

신안산선 연장사업을 위해서 중투를 받아야 되는 부문이 있습니다. 중투는 좀 더 현실적이고 화성시의 재정적 압박이나, 여러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기 싫어다 싶어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보완 차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더불어 이 부분들을 더 잘 보완해서 신안산선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연장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당선을 봉담과 향남, 우정까지 연결하는 부문들도 있고, 송산그린시티와 관련해서 동서 횡단 철도와 관련된 부문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까지는 아니지만 서부지역에 철도를 좀 더 확충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동서남북으로, 서울로, 또 다른 외곽지역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규 국장** : 이번에는 송옥주 후보께서 홍형선 후보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옥주 후보** : 홍형선 후보께서는 조치일관 분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시가 화성 100만 특례시와 화성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주장하는 분도(道), 여러 가지 선거구 편입, 이런 것과 맞물려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걱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갑을병정 4분의 후보가 계시는데, 을과 정은 화성을 전혀 모르시는 갑자기 낙하산처럼 오

의 효율성을 위해 이 대안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례시의 권한 14개를 다 살펴봤습니다. 도에 있는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 권한에 있어서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개발채 발행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옵니다. 이 부분은 유의성이 있습니다. 빛을 낼 수 있는 권한을 특례시장이 갖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서남부권 시민을 위해 빛을 낼 수 있을까, 65만 시민들을 위해 빛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서남부권 대표 의원을 자임하는 저지, 화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남부권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여기에 열정을 넣어야 하는데 65만의 표를 가진 지도자가 과연 25만짜리 서남부에 열정을 넣을 수 있는지, 우린 일반적 상식 문제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 교훈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화성시민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분시를 해도 (서남부권은) 서울시보다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00만도 가능하고 200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투자유치가 됐을 때, 자동차 메카 도시가 되고 관광벨트가 제대로 개발됐을 때,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할 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교육직책으로 어려운 결심을 해서 분시를 제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규 국장** :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와 관계없이 각 후보님께서 화성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주 후보** : 요즘 많이 힘드시죠. 화성은 100만 특례시라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이러 발전이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부지역 출신으로 서부지역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우려도 많습니다. 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1200건의 간담회를 했고, 900여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공약도 많이 달성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발전을



# 김 지사 “AI 기반 두고 도정 효율성 제고할 것”

## 도정 열린회의, 공공기관장에 성과 강조



27일 경기도청 4층 올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병권 행정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도정 열린회의가 개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공무원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가 되자고 말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들,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저부터 태블릿에 챗GPT로 만든 AI 연설비서관을 넣어서 시도하고 있다”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여 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점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기관 간에 서로 칸막이 치고 자기 일하면 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마치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 의료과업이 장기화되면서 공공 의료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병권 부지사 중심으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체계 가동 등 6개 공공의료원, 민간을 포함한 우리 의료기관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린다”며 “중앙정부에서 정교한 비전·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 화성태안3·화성비봉,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 기반·공공시설 불편사항 해결 방안 논의

화성태안3, 화성비봉, 양주회천, 파주운정, 과천시정보타운, 수원당수 등 입주 개시 3년 이내인 6개 지구에 입주지원 협의회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28일 입주 초기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민 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53개 택지·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자전거 통행로 연장,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4345건 중 3817건을 해결했고 528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지구 미성숙 상태로 인해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겪는 입주민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나 해당 시의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입주지원 협의회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3248), 신도시기획과(031-8008-2378)로 하면 된다.

# 화성 등 13개 시군 어장 조성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73억원을 투자해 화성, 양평 등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종자 방류, 서식처 관리, 갯벌어장 서식 환경 개선 등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도 연안 지역에는 낚치, 꽃게 등 6종, 575만 마리를, 강과 호수에는 뱀장어, 쏘가리 등 7종, 2360만 마리를 방류한다.

또 수산생물 산란·서식처 확대를 위해 안산과 화성시 연안 6306ha 규모로 설치된 인공어초 가운데 968ha를 보수하고, 북한강 등 주요 하천에 설치된 내수면 인공산란장 365개에 대한 사후관

리도 할 계획이다. 갯벌어장 생산력 향상을 위해 고소득 패류 4종 558톤과 모래 4532m³를 살포하고, 갯벌어장 내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1737억원을 투입해 도내 연안 등에 어린 치어 25종 6억 9984만 마리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4만 4458개소(6306ha)를 설치한 바 있다.



백미리어촌계의 중 패살포 모습.

## 경기도의회 Point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 최종현 위원장 정담회 열고 조례 제정 논의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장과 관계자들이 정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민주당, 비례),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례를 통해 인권 존중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안심하

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종현 위원장은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 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고,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 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라면서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고,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박차

## 김완규 위원장 도 실무진과 정담회



김완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도 관계자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27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한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운 팀장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수도권,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

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항공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우워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아름다운 환경 풍요로운 미래!  
우리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www.siconc.com

골재사업부



아스콘사업부



레미콘사업부



전문가 칼럼 화성춘추(華城春秋) ... (230)

4월은 정녕 잔인한 달인가?



이종원
청운대학교
문화예술경영
마이스학과 외래교수

뿐이다. 잃어버린 봄, 빼앗긴 봄이다. 동시대에 태어나 독립운동을 하던 소설가 현진건과 이상화는 되찾은 들에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길지 않은 생을 불가사의하게도 4월 25일, 같은 날 서울과 대구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4월은 정녕 잔인한 달인가? T.S.엘리엇은 433행이나 되는 장시 '황무지'의 첫 구절에서 4월을 노래한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이하 생략)

엘리엇의 이 시는 1922년에 발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처참하고 황폐한 도시, 공포와 두려움이 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영혼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싶다. 같은 시기 우리는 일제의 강점기였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같은 맥락의 아픔이 담겨있다.

4월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참으로 잔인한 달이다. 근대에서 최근까지 우리에게 4월의 역사는 피와 죽음의 사건들이 있다. 1948년 제주 4·3사건, 1960년 4·19혁명,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4월의 비극은 잔인한 4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일이고, 태만과 무지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슬러지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되돌릴 수 없는 한을 맺히게 했다. 잔인한 4월이다.

어둡고 차가운 땅에서 긴 겨울을 나며 봄을 기다려 온 뿌리가 언 땅을 녹이고 비집어 찌를 트고 꽃을 피우는 이름다운 이 4월의 인간사는 또 복잡하다. 의사들은 사표를 내고, 환자는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버스는 차고에 멈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나만 잘나고 나만 옳으며, 내가 최고라고 나를 국회사로 보내달라고 목숨을 세우고 있다.

4월이 더 이상 잔인한 달이 아니길, 4월은 아름답고, 자유스러우며, 평화롭고 희망의 달이기를 국민 모두가 바란다.

contlee1@naver.com

4월이다.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진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 봄을 피워내는 4월은 아름답다. 사람들도 가벼운 웃음으로 같이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자유롭고 평화롭다. 텃밭, 내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도 태평하다.

언제까지도 깨어날 것 같지 않던 눈 덮인 동토, 그 대지에 어떤 파란 새싹이 돋고 꽃들이 앞다투어 피고 있다. 아름답고 신비롭다. 광경은 참으로 평화롭다. 우리가 보는 지금의 4월이다.

때로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아 공포의 도가니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전쟁으로 공포와 죽음의 4월이 되기도 하였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젊은 생명을 불사르기에도 하였다.

산과 들에 봄은 왔으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의 억압에 고통받던 시절,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였다. 독립운동가인 그는 강점기 봄의 심경을 시에 담았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중략)/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다. 봄은 왔으나 들엔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지배의 억압이 있을

박은숙 시인의 '생활과 시(詩)의 동거' 15



박은숙
시인 / 메밀꽃 천서리
막국수 대표 /
시인로스쿨화성지점장

고양이를 문 나비

나비라는 고양이
나비를 물어서 나비라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비가
고양이의 입에 앉아서 나비다

나비는 고양이의 수염을
몇 천 평 갈대밭이나
이제 막 출발한 빗줄기쯤으로 알고 있는 듯하고
나른한 봄의 콧등을,
수평선이 보이는 눈동자를
맞춤한 줄음쯤으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비는 할머니의 입속에서 튀어나온
영리한 고양이
할머니의 입속에는 아찔한 난간이 있고
몇 마리의 죽은 새와
보은의 죽은 털 문지들이 있다

우화 속에서 달고 온 방울
어쩌다 실수로 꽃을 입에 대려 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때 꽃에서 나비가 옮겨 앉았구나
어떤 곤충학자가
나비를 고양이 입가에 압편으로
꽃아 놓은 것이 분명하다
할머니가 나비아, 나비아 부른다
부어놓은 사료가 꽃술 같다



창틀에 하릴없이 앉아 즐기고 있는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콧등에 나비가 앉아 있다. 고양이의 콧등은 나른한 봄날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언제부터 전해져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고양이와 나비로 불리게 된 사연은 분명 꽃피는 어느 봄날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기고

나의 살던 고향 매향리는 미군 전투기 날던 전쟁터였다 ②



전만규
매향리 지킴이

에는 전투기가 폭격 연습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온리(高溫里)'로 보인 것이다. 쿠니사격장은 동아시아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한 A급 훈련장으로 미 공군 태평양 사령부 산하 미제 7공군으로 괌, 오키나와, 일본, 태국, 필리핀 등 동아시아 주둔 미 공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폭격 훈련을 평가받는 국제 사격장으로 활용되었다.

1968년 미군 전투기 사격장 확장 조성 공사로 매향리 주민들은 협잡에 강제 수용 또는 무상 징발당했으며, 미군 전투기 사격장으로 조성된 후에는 철책을 넘어 미군 기지로 들어가 농사를 지어야 했고, 국방부에 비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1988년 12월 12일 쿠니사격장 점거시위 농성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표출되었다. 특히, 필자가 주도한 쿠니폭격장 점거시위 사건으로 미군 전투기 폭격 훈련이 방해를 받게 되자 미군측은 필자가 경각하는 논과 모란에 모래와 자갈을 퍼붓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격분해 미군기지를 야간에 습격을 했다. 기습적인 야간 시위는 레이더 장비와 기지 시설물 등을 타격을 대로 파괴하였고 이는 역 보복 사건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그러자 오산 미군 사령부에서 완전히 무장한 미군의 기동 타격대가 헬리콥터로 출동하는가 하면 400여명의 경찰이 긴급 투입되는 등 마을 전체를 속대발으로 만들고 주민대표 전만규 위원장 등 지도부와 20여명의 주민들을 입건했다.

한국 정부는 미 8군 사령부에 사과문을 보냈고, 미군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주민들에 한해 미군기지 내 경각 활동을 제한하며 보복 조치를 이어갔다.

위 사건 이후로도 크고 작은 오폭 및 불법탄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주민들은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천막 시위 농성을 벌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한미 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수백 가구 주택 파손의 수리비 일부(95년 당시 3억 5000만 원)를 지급받았다.

그러다가 2000년 5월 8일 훈련 중이던 미군 전투기(A-10)가 엔진 고장으로 인한 오폭(500파운드 폭탄 6기)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주민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백 가구가 파손되었다.

그러나 한미합동조사단은 6월 1일 국방부 기자 회견장에서 "5월 8일 오폭 사건으로 인한 그 어떠한 피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매향리 주민들과 전 국민을 알잡아 보며 대국민을 기만했다.

이때, 필자는 주민대책위원장으로 한미합동조사단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현장 기자회견을 마련 직후 미군기지 철책을 넘어 뛰어 들어가 우리 매향리 주민들에게 압제의 상징이던 주황색 깃발(미군 전투기 사격 깃발)을 찢으며, 대내외에 제2의 매향리 대투쟁을 선포했다. 필자는 현장에서 바로 사복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구속기소 되었지만, 그날 국내외에 방송된 매향리 대투쟁의 선포 기자회견은 국내외적인 굵은 민중연대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 다음 호에 계속

“화성신문을 보면 화성이 보인다”
구독문의. 031-232-1980

대리운전만 이용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중물대리
마중물대리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5인 이상 중소기업 법인 후불 대환영!
1661-0021

화성신문 문화사랑나눔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신문 구독료 및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로 사용한 금액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 적용(최대100만원, 공제율30%)
공제 대상자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공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결제할 경우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후원 1구좌(1부) - 금액 100,000원
후원방법 후원계좌에 입금 완료 - 화성신문 메일 또는 팩스, 전화로 신문 선물할 실 주소 및 연락처, 입금자 내용 전달 - 신문 우편발송 (1년)
화성신문 구독후원계좌 농협 351-0076-7779-73

조영호 교수의

Leadership Inside 231

제비뽑기로 리더를 뽑으면 겸손해질까?



조영호 아주대학교 명예 교수

1일 7시간 근무, 70세까지 정규직 유지, 3년 육아휴직 등 사원복지가 좋기로 소문난 일본의 미라이 공업. 그 회사의 창업자 아키오 야마다(1931-2014) 사장은 사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선풍기로 날려 가장 멀리 나간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기행을 보였다. 그는 "누가 리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보통은 아키오 사장과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리더에 앉을 사람은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리더 선발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 인사과를 하고, 실적평가를 하고, 인터뷰도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치른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다. 리더로 선발된 사람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조직이 갈등을 빚거나 와해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아키오 사장의 선풍기가 생각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선풍기로 돌리거나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아테네에서는 실제로 지도자를 복권 추천방식으로 뽑았

다. 그 당시에도 선거와 추천방식을 저울질했는데, 선거는 기득권자들의 폐쇄적 정치소라고 생각했고, 조직을 분열시키고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추천을 하면 훨씬 공정하게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부정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지도자를 교체함으로써 기득권층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가축도 아닌 인간이 제비뽑기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제비뽑기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지혜와 덕을 갖춘 철학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거방식이나 평가 방식이 지혜와 덕을 갖춘 지도자를 만들어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리더십 학자들이 이 고전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실증 실험을 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수팀(Berger교수, Osterloh교수 등)이 취리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본 것이다(리더십 연구의 권위지 The Leadership Quarterly에 2020년에 발표). 연구자들은 취리히 공대와 취리히 연방 공대 재학생 864명을 6명씩 팀으로 구성하고 이 팀을 세 개 부류로 나누었다(각 48개 팀).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선발' 그룹으로서 여기서는 팀리더를 상식시험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두 번째 그룹은 '완전 무작위 선발' 그룹으로서 여기서는 제비뽑기로 팀리더를 선출하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부분 무작위 선발' 그룹으로서 성적으로 상위 3명을 가리고 그 3명 중에서 제비로 리더를 뽑게 했다. 그리고 서 이 팀들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은 의사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리더가 자만심이 높고 이기적인가를 보고자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개인 성향이 있

었다. 기본적으로 자만심이 높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더가 어떻게 선발되었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적으로 리더가 된 곳에서나 제비뽑기로 리더가 된 곳에서는 자만심이 높은 리더가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실적으로 3명을 추린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발한 경우 자만심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 성향을 죽이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팀원들을 지원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 연구는 100% 경쟁이나 100% 제비뽑기보다는 두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리더를 뽑는데 완전히 무작위로 뽑는 것도 플라톤이 지적한 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실적으로 뽑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리더의 자만심과 특권적식이다. 자기가 잘라서 그리된 줄 알고, 구성원을 무시하거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작위적인 요소 또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힘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실제로 천목 모임에서는 회장을 선출할 때, 재미로 제비뽑기한다거나, 사다리 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라이 공업의 아키오 사장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오로지 당근만으로 사람을 경영하려 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문화를 만들면서 리더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조직원 중심의 조직을 만들려 한 것이다. 그의 선풍기 방식이 리더를 겸손하게 하고 조직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게 아닐까?

choyho2@naver.com

사설

제22대 화성 국회의원에 거는 기대

어느덧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0일이면 최초로 화성시 갑, 을, 병, 정 네 곳의 국회의원이 정해진다. 이번 선거는 화성시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맞이하게 되는 화성 시민의 대표자를 뽑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묵은 정당의 해계고니 싸움 등에 따른 늦은 공천으로 인해 시민이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주 화성시에는 큰 변혁이 두 개나 있었다. 30일에는 수서로 향하는 GTX-A가 드디어 운행을 시작했다. 이제 화성시에서 서울 강남권역으로 가는데 20분도 걸리지 않게 됐다. 교통 여건으로 인해 서울의 고급 인력을 얻기 힘들었던 지역 경제는 화색이다. 완벽하게 수도권으로 편입하게 된 화성 시민의 기쁨도 크다. 무엇보다 '전철 없는 유일한 신도시' (1호선 서동탄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평을 들었던 동탄 1, 2신도시도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 SRT와 더불어 GTX-A 환승이 가능한 동탄역이 명실상부한 경기 남부권 교통허브로 자리 매김했음은 물론이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도 마무리됐다. 상행선이 개통되며 이어 28일 하행선도 운행을 시작했다. 지하화된 경부고속도로로 화성 통과 구간 상단에는 6개의 도로가 만들어져 동탄1과 2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

GTX-A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라는 교통 혁명이 일어났지만 우리 정치권은 어떠

한가? 28일 공식 선거운동과 더불어 물어뜯기도 본격화했다. 화성시병 선거구에서는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화성시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비리 의혹을 놓고 힘겨투기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화성시에는 유독 화성 외부 인사들의 공천이 많다. 현역 국회의원인 송옥주, 권철승 의원은 재공천됐고, 이원욱 의원도 개혁신당으로 3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화성시와 연관성이 부족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전용기 후보, 국민의힘 한정민, 유경준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화성시민들로서는 누가 지역을 대표하고 올바른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

GTX-A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는 화성시 재도약의 시발점에 불과하다.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하고 100만 특례시에 걸맞게 난개발로 얼룩진 화성시 전역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 송산그린시티, 화옹지구 등 늦춰지고 있는 개발사업을 지원해야 하고, 계속되는 수원군공항을 저지해 내야 할 과제도 있다.

국가적인 과제도 많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이 할 일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 마련됐다. 전국 5번째 화성시에 필요한 인제가 누구인지,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정책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윤채 원장의 건강한방 이야기 1

건강한 물 마시기



지윤채 푸른나무 한의원 원장

나날이 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치유할 수 없는 환자가 아직 너무나 많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은 사망 원인의 1/2, 우리나라는 1/3이 암이다. 암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노년층의 증가 곧 장수에 있다. 노년층이 많아지는 것이 암 환자 증가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노년층의 문제라고 보기에에는 젊은 20대,

30대 암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암을 죽음의 동반자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평생을 암을 알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암환자들의 병력을 추적 관찰하다가 발견한 암환자의 특징 중 하나가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라고 한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뇌의 80%가 물이다. 어리면 어릴수록 물의 비율이 높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물을 물처럼 보면 안 된다. 물이 보약이다. 물이 생명이다. 물은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한다. 또한 몸과 뇌의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 물의 적정 섭취량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루 2리터 정도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물이 1리터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41% 낮았다. 또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방광암, 신장암, 식도암 등의 발병률도 낮았다.

가끔 과일 주스나 녹차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물을 섭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커피나 녹차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많이 마셨다면 도리어 몸안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더 마셔야 한다. 가령, 커피의 주요 작용 중 하나가 각성작용이며 강심작용, 이뇨작용이 있다.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물을 두 잔 더 마셔야지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보충할 수 있다.

요즘 아동 청소년들은 물보다 탄산음료나 과일 음료 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신다. 같은 수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수분은 물로 보충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 아동 청소년들이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떨어졌다고 한다.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놀이문화가

게임 미디어 웹툰으로 바뀌면서 움직이는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자주 걷고 많이 움직여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운동량이 적으니 수분 섭취량도 낮아지는 것이다. 하루 1시간 운동을 해서 체력도 키우고 자연스럽게 물을 마셔서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운동하는 만큼 스트레소도 풀리고 집중력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체소나 과일은 90%가 물이다. 평상시에 체소나 과일을 많이 먹고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점심 식사 2시간 후에 물 1컵씩을 생활화한다면 적절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아침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수분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물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장청소를 하게 도와주는 작용이 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물 마시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메사에 피곤하고 짜증지수가 자주 올라간다면 물이 보내는 물 부족 신호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을 비롯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사

고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불안증, 강박증, 우울증 등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병의 원인이 물 부족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평상시 자신이 적절하게 물을 섭취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다. 자신의 소변을 관찰하는 것이다. 소변색이 너무 묽으면 물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변비를 개선해 주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준다. 다만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은 숙면을 방해한다. 자다가 소변이 보고 싶어서 일어나는 야간뇨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은 가볍게 목을 적시는 정도가 좋다.

아침에 반숙에 미온수 한잔하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 점심 식사 후 4시~5시 사이 미온수 한잔하는 것으로 수분 보충해서 평생 건강을 예약하기 바란다.

지윤채 원장은 병정의 푸른나무 한의원 원장으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저서로는 '틱증상 ADHD 발달장애 가정에서 치료하기', '불안 우울 강박 스스로 벗어나기' 등이 있다.

화성의 정론지 화성신문

구독료를 납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신문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만들어집니다

월구독료 1만원 ※자동이체를 희망합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1-0076-7779-73 (주)화성뉴스 문의 (031)232-1980

- ▲국립중앙도서관 ▲유태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병점신협 ▲김겸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신동아전자(주)2 ▲경기신용보증재단 ▲(주)남경 ▲진석범 ▲황정화 ▲김영미 ▲최선덕 ▲연돈원 ▲박대선 ▲석우초등학교 ▲마도기업인협의회 ▲(주)화성합동 ▲이호경 ▲(주)마중물대리 ▲(주)헤인샌더 ▲대한토지개발 이명후 ▲오보환 ▲원영현 ▲(주)나앤나 ▲진양테크 ▲(주)한서정밀 ▲양진준 ▲김정아 ▲(재)화성산업진흥원 ▲(주)신양메카텍 ▲(주)씨엔원 ▲(주)에스엠텍 ▲(주)유림솔루션 ▲(주)유앤아이디앤씨 ▲(주)인천이피에스 ▲(주)자트 ▲(주)정우테크닉스 ▲(주)태성 ▲(주)한국티알 ▲아성로지텍 ▲k요양병원 ▲경기남부지부 ▲고태선 ▲광고세무법인화성 ▲구영환 ▲김가은 ▲김근영 ▲김나림 ▲김병균 ▲김승현 ▲김은희 ▲김종복 ▲김희만 ▲노작홍사용문서관 ▲동탄총무과 ▲박용섭 ▲배정민 ▲사회공헌 ▲상원산업(주) ▲서신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시흥건설 ▲신호정 ▲아파트자치신문 ▲안대진 ▲안대진 ▲안수석 ▲안용중학교 ▲안태민 ▲에스엔에스필텍(주) ▲와이텍주식회사 ▲우림우레탄 ▲유용근 ▲유해국 ▲윤시연 ▲윤태하 ▲이동목욕 ▲이미향 ▲이산고등학교 ▲이상윤 ▲이호헌 ▲전문상담봉사 ▲정남중학교

# 발안장터 만세운동 문화제, 제암리 기려

# 바르게살기운동 강윤구 회장 이임·유남열 회장 취임



2024 발안장터 만세운동 기념문화제 모습.

유남열 회장이 취임 후 바르게살기운동 기를 전달받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향남읍 주민자치회 주최·주관, 화성시 후원으로 23일 향남읍 일원에서 '2024 발안장터 만세운동 기념문화제'가 개최됐다.

청소년,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제암리 학살사건의 역사와 의미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1919년 3월 31일 향남읍 발안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행위다. 동년 4월 15일 제암리교회에 주민들을 강제로 모이게 한 후 건물을 폐쇄하고 불을 지른 뒤 총칼로 학살하고 인근 민가를 불태운 사건이다.

이날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하나가 됐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함께 연호하며 발안초등학교에서 향남2지구

중앙광장까지 도보행진하며 발안장터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이어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 삼창 등과 문화 예술공연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이광훈 향남읍장은 "향남읍은 일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하며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충(忠)의 고장"이라며 "105주년 3.1절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유서 깊은 제암 만세 운동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김근열 향남읍 주민자치회 회장은 "발안장터 만세운동 기념문화제는 화성의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행사"라고 의미를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 유 회장 "화성시를 풍요롭고 희망찬 도시로"

이 참석해 이취임을 축하했다.

유남열 제10대 취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 아래 지역사회에서 시민의식 교육, 범죄예방, 바른 국가관 정립 등을 위한 국민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역대 회장님들의 뜻을 이어 화성시가 보다 풍요롭고 희망찬 도시로 힘차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위원장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 화성시평생교육사협회 제1회 정기 총회



화성시평생교육사협회 정기 총회 후 회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지역의 평생교육사들에게 버팀목 역할 기대

화성시평생교육사협회(회장 박서후)는 23일 등

탄 남광장에 위치한 해피엔드협동조합에서 제1회 정기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진행, 화성시 평생교육분야 교육 및 컨설팅 진행, 화성시 평생교육사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지속가능발전협-수원대-그린리더십센터, 업무협약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대학교 경영공학대학, 그린리더십센터는 25일 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대학교 경성대학 COMPLEX관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해 공동으로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지

속가능발전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와 대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용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와 수원대학교가 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에서 역량을 결합,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인재를 찾습니다

(문의 : 화성시일자리센터 031-5189-4211~3)

회사명	소재지	모집직종	인원	근무형태	급여
주식회사쓰리엘시스템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반로	경리 사무원	1	주5일	연봉 2,500만원 이상
동화택주식회사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2길	제조 단순 종사원(검사 포함)	2	주5일	시급 9,860원 이상
주식회사티에이	화성시 반월길	품질검사원(반도체 부품)	2	주5일	시급 9,860원 이상
병당지역아동센터	화성시 병담읍 복촌길	사회복지사	1	주5일	월급 210만원 이상
주식회사원테크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487번길	제조 단순 종사원(제단 절곡)	2	주6일	월급 270만원 이상
대원산업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460번길	제조 단순 종사원	2	주6일	시급 9,860원 이상
주식회사이침에이로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930번길	품질검사원(의료기기)	2	주5일	시급 9,860원 이상
신일화성	화성시 장남면 신백길	제조 단순 종사원	3	주5일	월급 220만원 이상
효연제 주식회사	화성시 왕배산길	소방안전관리자	1	주5일	월급 230만원 이상
(주)티엔제이메탈	화성시 장남면 신새말길	제조 단순 종사원(절단 가공)	1	주5일	월급 250만원 이상
주식회사 송산그리네너지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경리 사무원	1	주6일	연봉 2,400만원 이상
대인산업	화성시 마도면 생승북로	제조 단순 종사원(조립)	1	주5일	월급 200만원 이상

## 노작홍사용문학관, 화성 출신 '가왕' 조용필 조명

### 유성호 문학평론가 "조용필 음악의 핵심은 특정한 시대와 장르 넘는 보편성"

노작홍사용문학관(관장 손택수)은 21일 화성 시민의 날을 맞아 노작홍사용문학관 산후화극장에서 개최한 노작인문강좌 '새로운 화성과 시민들의 함창' 첫 강연을 진행했다. 3월 강연은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화성의 매직 아티스트, 조용필'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섰다.

2024 노작인문강좌의 시작을 알린 이번 강연은 우리 시대 '가왕'이자 화성을 대표하는 예술

인인 조용필에 대해 조명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손택수 관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뒤 유성호 문학평론가의 본 강연과 시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도서 증정과 저자 사인, 기념사진 촬영 등 알찬 이벤트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유성호 문학평론가의 설명으로 조용필의 음악에 대한 문학적 해석과 예술적 가치를 알아본 이번 강연에는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을 증명하듯 대전, 서울 등 타지에서 찾아와 객석을 꽉 채웠다. 조용필의 대표곡 '꿈',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등을 감상하는 한편, 마지막에는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그의 노랫말을 합창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유성호 문학평론가는 "조용필이 사람들에게 '가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대



강연 후 유성호 문학평론가와 참석한 시민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적인 가수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의 노래에는 특정한 시대나 장르에 갇히지 않는 보편성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들진 시대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전파한 아티스트"라고 평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100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화성

가동·이웃·화성사랑

화성사랑회 창립 제24주년 기념

# 제14회 화성사랑 가요제

본선일시 | 2024년 4월 28일(일) 18:00

본선장소 | 용건릉 옆 정조효공원 광장

후원 | 화성시, 화성신문, 화성저널, 한국연예예술단

협찬 | 수원농협, 수원축협, 태안농협



초대가수  
**정미애(미스트롯)**



초청가수 현 당



김그림 엔 데 이



KBS MC 이 정 무



MC가수 정 선 희



초청가수 최 누 리



초청가수 정 도 원



박 경 원



다원예술단



정구예술공연 신 디 아



신나는공연단

**예심 안내** | 일시 | 2024년 4월 19일(금) 오후 1시

장소 | 용건릉 옆 정조효공원 광장

**참가 안내** | 참가 신청 | 2024년 4월 18일(목)까지 / 참가비 | 20,000원

신청 장소 | 화성사랑회 사무국 (문의 | 010-6399-4677)